

이책 저자

삶과 죽음에 관한 중국인 단상
중국의 종교문화 박미라 옮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제로 불사(不死)와 영원을 추구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역사적 실례를 들어 생생하게 조명한 책이 우리말로 나왔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연구원 위엔양 씨가 쓴 <중국의 종교문화>(박미라 옮김, 길)는 중국 전통의 종교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과 사상을 드러내어, 중국인들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했는지를 보여준다. 즉 고대 중국의 생사관이 중국문화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책이다. 그렇다고 불교, 도교, 유교 등 종교의 생사관만 기술하지는 않는다. 원시의 귀신신앙과 고대의 신화를 각각 독립된 장으로 다루었고, 문인들의 초탈적 생사관을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김중근 기자

인락사·낙태를 보는 불교의 눈
'불교와 생명윤리학' 허남열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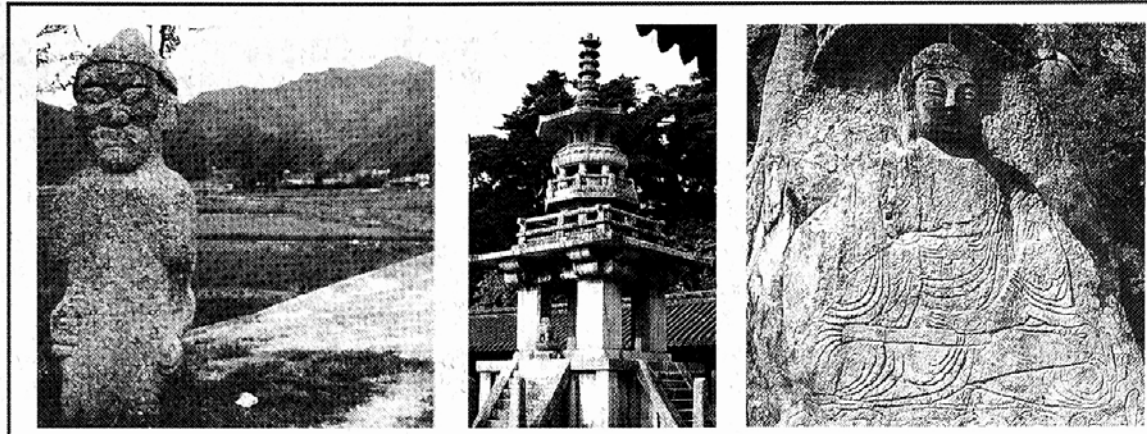


인락사 문제는 현대 의료윤리학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현대의학은 뇌 기능의 정지라는 측면에서 죽음을 정의하고 있지만 인락사를 둘러싼 의학·윤리적·법률적 논쟁의 불씨를 끄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는? <불교와 생명윤리학>(불교시대사)은 오늘날 의료윤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들, 이를테면 인락사, 인공유산, 태아실험, 뇌사 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은 초기불교인 상좌부 경전 및 주석서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 책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 지식으로서의 불교와 윤리학 및 의학과의 밀접한 관계를 새삼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값 1만원. 권형진 기자(jinny@buddhopia.com)

10년간 티베트 불교문화 체험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김규현 지음



티베트문화연구소를 설립, 티베트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김규현 씨가 10년 동안의 티베트 문화체험을 담은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을 도서출판 도피안사에서 내놓았다. 만다라의 도시 라사, 태초의 땅 창탕고원, 지구상의 최고봉 조모랑마를 돌아보는 여정을 큰 줄거리로 하여 그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인도 문화를 기행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가 주로 찾아가는 곳은 티베트 불교의 총본산 조각산원, 불교문화의 보고 사카사원, 수미산 등 티베트 불교의 현장이다. 티베트 문화의 현주소부터 티베트인들의 정신까지의 문화와 사상을 중심으로 소개한 이 책은, 티베트 신비를 알게 해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진리로 나뉜 바위 속 부처

'돌의 아름다움' 박동석 등 5인 공저

불상을 조각하는 석공들은 바위 속에 부처님이 살아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석불을 조성하는 것을 돌 속의 부처님을 모셔온다고 말한다. 진리가 영원하다면 부처님을 조각한 불상도 영원해야 한다. 그렇다면 견고성 등의 차원에서 돌보다 더 적절한 불상의 재료는 없을 것이다. 석불이 주는 조형미와 입체미야말로 진리를 형상화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사막 한가운데서 꽃인 중국 돈황 석굴의 화려한 불교미술도 흙이라는 재료의 한계 때문에 파손되어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돌 조각의 우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나라에는 유난히 석불과 석탑이 많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석재가 풍부하고 또 견고하여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산 정상에서 세상을 지국이 내려다보는 원각상으로, 깎아지른 절벽의 앞은 마애불로, 때로는 지금은 없어져 버린 절터를 홀로 지키는 단아한 모습으로 우리 산천 곳곳에는 여러 모습의 석불들이

부동의 자세로 우리를 맞이한다. 박동석 국립공주박물관장, 소재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등 소장 연구가 5명이 쓴 <돌의 아름다움>(다른세상)은 우리 나라 돌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살핀 책이다. 글쓴이들은 돌과 인간이 만나 만들어낸 예술과 문화의 흔적인 석불, 석

석불·석탑의 미학

사진 곁들여 쉽게 해설

탑, 암각화, 돌장승 등 5개 분야로 나눠 돌 문화의 미학을 찬찬히 훑어간다. 석불에서 우리의 슬결과 정서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석탑은 인간의 영원이 담긴 절제된 미학으로 접근하고, 암각화를 통해 수천 년을 건너온 인간의 역사를 읽어낸다.

돌은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일으킨 뿌리이다. 그래서 생활문화에서 정신문화에 이



르기까지 돌 문화 속에는 인간의 삶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글쓴이들은 조상들이 돌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구현하고자 했는지 그 정신적 발자취를 찾아간다.

우리 민족은 부처님이 되든 탐이 되든 돌마다의 성정대로 합당한 조형물을 만들었다. 때로는 초월적인 상징물이나 웅장하고 세련된 조형물로, 때로는 질박한 표현 기법의 해탈된 수 없이 많은 작품들을 이 땅에 남겼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인간을 닮은 우리 돌 문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민속학과 미술사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풀어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진 자료를 풍부하게 담아 일반인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책의 미덕이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부처 깨닫는 과정 눈에 보듯 생생

다카하시 신지 영적계시록 '붓다'



부처님 생애에 대한 불서들이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은 대부분 부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해탈,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다룬 책은 거의 없었다.

최근 우리말로 번역 출간된 논픽션 <붓다>(김해석 옮김, 해누리)가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글쓴이는 영혼의 존재 이유를 밝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된 7가지 이유>로 국내에 알려진 일본의 명상가 다카하시 신지.

그가 부처님의 계시에 의해 썼다는 이 책은, 신타르타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내면의 심리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부처님이 득도과정에서 겪었던 고뇌와 극복과정을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내 안에 살아 있는 부처님'을 찾을 수 있게 이끌어 준다. 이와 함께 이 책은 부처님 제자들의 수행생활을 비롯 경전의 의

미와 인도사회의 풍습 그리고 제도 등도 수록돼 있어 부처님 입멸전의 시대상도 알게 해준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부처님과 예수의 만남이다. 깨달음을 얻은 신타르타가 아무도 자신의 깨달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휩싸여 있을 때, 예수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대화를 나눈다. 이처럼 이 책에는 부처님과 예수의 영적 대화로 가득하다.

승산 스님(화계사 주시)은 추천사를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불경의 의미와 부처님께서 득도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며 "특히 출가와 득도 부분을 기존의 다른 부처님 일대기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정확하게 다룬 점이 뛰어나다"고 평했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구름 없이 내리는 소나기 1·2(오쇼 지음, 강애나 옮김, 황금꽃)= 우리가 아는 깨달은 사람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여성 가운데 깨달은 사람이 없어 서일까. 이 책은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진 여성들도 '사랑과 헌신'을 통해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꼽>의 저자로 국내에 잘 알려진 인도의 명사가 오쇼가 18세기 인도의 깨달은 여성 사하조씨의 저서 <사랑의 경전>에 대해 강의한 내용을 담았다. 값 7천5백원



▲배가 고플 때에는 마음껏 먹어라(프란츠 메카프 지음, 박윤정 옮김, 도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너무도 광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부처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한 지혜를 제시한다. 즉 부처님이라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값 6천9백원.



▲인연(서종원 지음, 연꽃마을)= 전쟁이 남겨 준 상처 속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비구니로,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수녀로 만난 어머니와 딸. 그들에게 남겨진 업의 연결고리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휴전을 되었으나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땅의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그린 소설이다. 값 8천원.



▲묘법연화경(해승 스님 역, 부다가야)= 대승경전의 정수로 꼽히는 <묘법연화경> 한글독송서. 불자들이 독송 및 사경에 용이하도록 구마라집의 <묘법연화경>을 새롭게 번역했다. 부록으로 도입 스님이 지은 '법화경 예찬', <법화경>을 바탕으로 참회와 발원이 정진이 원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천태지자 대사의 '법화삼매보통'도 옮겨 놓았다. 값 2만원.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동아일보 출판국 엮음, 제3공간)= 인도의 고대 경전 <베다>부터 파스테르나크의 소설 <닥터 지바고>까지 사상, 역사·지리, 사회, 자연, 과학, 문학, 예술 등 다섯 분야로 나누어진 이 책은, 주요내용과 글쓴이의 행적, 역사적 가치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인생관 내지 세계관의 바탕이 됐거나 그것의 변형을 초래한 책, 인간지혜의 계발과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한 책, 사회변동과 정치적 발전에 직접 자극이 된 책이다. 값 각권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서방 예시언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언
2	심천사월요법	박 남 희	정신세계사
3	이론 아침 나를 기억하라	탁 남 한	지혜의 나무
4	법구경(작은경전1)	지 현	민족사
5	단박에 율법을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광
6	아난존자의 일기	원나시리	운주사
7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래
8	천수경 천수신앙	해 국 효	림
9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랄라 레아	문이당
10	라마나 마하쉬쉬와 진아	탐 구 사	탐 구 사

도서 안내:(02)737-0695

18년 동안 300여 쌍의 영혼결혼식 주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베푸는 설산 스님의 인간적인 따스함



아름다운 마음

설산스님 에세이

덧없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백련사 설산스님의 구도 에세이

- 영혼결혼식, 그 질긴 인연의 끈
- 여배우의 젓가슴에 써 내려간 반야심경
- 스님의 약혼식
- 한 영혼과 대면하다
-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
- 내가 체험한 불가사의한 영혼의 세계
- 영혼은 반드시 있다
- 나의 죄는 내가 전생에서 빌어 온 것이다

★ KBS 아침마당 목요초대석 출연

오늘밤 나는 알몸이 되고 싶다
그 알몸으로 당신의 시린 가슴을 받아주고 싶다
그 알몸으로 당신이 가시는 길에 등불이 되고 싶다

*Home Page address: http://www.seolsan.com / *저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321-3 (Tel: 303-0024) *무로 영혼결혼식에 관련된 문의를 받습니다.



대표전화 586-0477
팩시밀리 586-0478
출판사 정어리 배비